

문화예술전문매거진 <THE MOVE>와 함께 하는

이 달의 추천 공연 5

미래 디스토피아에 대한 섬뜩한 경고
연극 <렛 뎀 잇 머니>
(Let Them Eat Money. Which Future? !)

2028년,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136년 전통의 도이체스 테아터와 독일의 훔볼트 포럼이 “우리를 굴복시킬 다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 시작한 <Which Future?!>라는 연구 및 연극 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극 <렛 뎀 잇 머니> (Let Them Eat Money. Which Future?!)가 탄생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과학자, 예술가, 관객들은 2년간의 연구조사와 심포지엄을 통해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면서 향후 10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그려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극 <렛 뎀 잇 머니>가 만들어졌다. 유로존 붕괴부터 난민 대이동, AI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력, 데이터의 통제와 감



시,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렛 뎀 잇 머니>에는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약 10년 간 유럽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사건들이 촘촘하게 나열된다. 이 모든 문제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무능한 정치가 혹은 탐욕스런 자본가가 국가와 시민을 기만한 결과일까? 또는 우리 모두가 예측할 수 있었지만 현실이 되지 않기만을 손 놓고 바라보던, 이미 정해진 결과가 드디어 도래한

것일까? <렛 텀 잇 머니>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실패의 결과와 책임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의 연극 제작 극장으로 손꼽히는 도이체스 테아터(DT: Deutsches Theater Berlin)가 5년 만에 내한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려낸 실험적인 연극 <렛 텀 잇 머니(Let Them Eat Money. Which Future?!)>를 통해 우리에게 화두를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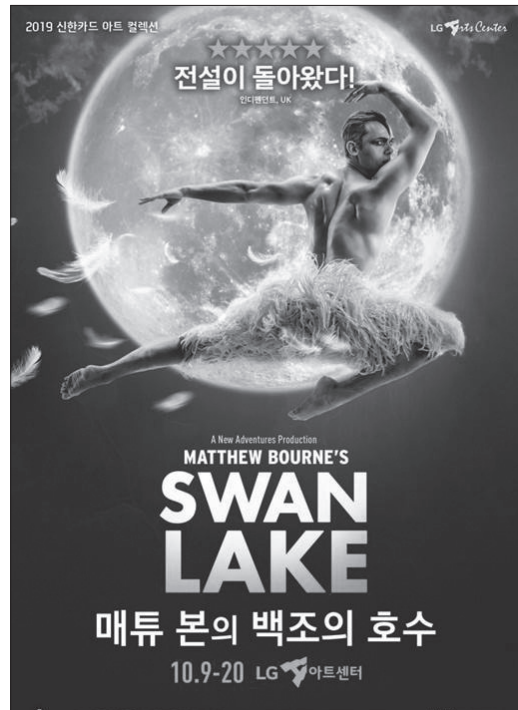
새하얀 소금이 촘촘히 깔린 무대 위에 검은 옷을 입은 배우들이 등장한다. ‘렛 텀 잇 머니’라고 불리는 이들은 2028년 현재 유럽 사상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이유를 조사한다. 유럽의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정치가, 자본가, 권력자들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렛 텀 잇 머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의사 결정을 내린 책임자들을 납치하여 질문한다. 질문과 추궁을 받는 사람들은 서로 한 편이 되기도, 혹은 책임을 전가하는 반대편이 되기도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오간다.

9.20-21 LG아트센터

전설이 돌아왔다

매튜 본의 댄스뮤지컬 <백조의 호수>

매튜 본의 메가 히트작 <백조의 호수>가 9년 만에 한국 무대를 찾는다. 고전 발레의 상징과도 같은 섬세하고 가녀린 여성 백조 대신 근육질의 남자 백조를 등장시키며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백조의 호수>는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룩런한 무용 작품이자, 2011년 3D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이다. 국내에서도 2003년 LG아트센터에서 첫 내한공연 이래 2005년, 2007년, 2010년 이후 다시 LG아트센터 무대로 돌아온다.



머나먼 동화 속 이야기만 같던 원작의 스토리를 폐기하고 현대 영국의 왕실을 배경으로, 유약한 ‘왕자’와 그가 갖지 못한 강인한 힘과 아름다움, 자유를 표상하는 존재인 ‘백조’ 사이에 펼쳐지는 가슴 아픈 드라마다. 웅장하면서도 다채로운 차이콥스키의 음악에 신비로운 호수와 화려한 왕실 무도회, 런던 뒷골목의 바(bar) 등 왕자의 환상과 현실 속의 공간을 오가며 마치 영화를 보듯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펼쳐낸다. 특히, 깃털 바지에 근육질의 상체를 드러내고 백조로 분한 남성 무용수들의 관능적이고 역동적인 군무는 강한 힘과 거친 카리스마를 발산해내며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초연 후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용계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고 평가되고 있다.

10.9-10.20 LG아트센터



‘휴머니티(HUMANITY)’ -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인간 개인과 인류 공동체적 가치로서 국제사회의 이슈로 심화되는 ‘휴머니티(HUMANITY)’란 주제 아래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55일간 펼쳐진다. 5개 본전시를 비롯해 특별전(5개), 개막 심포지엄 및 국제학술대회, 비즈니스 연계 프로그램, 교육, 이벤트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올해로 8회째인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50개 국가에서 디자이너 등 650여명,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1130여 종의 전시 아이템을 선보였다. 메인 전시인 본 전시는 디자인의 혁신적 관점에서 사회 속에 비춰지는 다양한 지적 융합으로 본질적 문제의 발견 및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다름과 공생(상징조형물), 사람을 노래하다 (1관 주제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2관 국제관), 사람, 사람들을 위한 기술(3관 기업관), 답하라, 너, 나, 우리!(4관 체험관), 광주다움, 광주 사람들의 생각(5관 산업관)등 5개관 6개 주제전으로 구성됐다.

9.7-10.3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

제16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아프로 쿠반(Afro-Cuban) 재즈의 정수와 오마르 소사

올해 최종 라인업의 아티스트는 총 23팀으로 이 중 8팀이 국내팀, 그 외 15팀이 해외 초청이다. 매해 한 국가를 집중 조명하는 포커스 프로그램은 올해 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덴마크를 집중 조명한다.

쿠바 재즈계의 거장 피아니스트 오마르 소사는 작곡과 연주 모든 면에서 드러나는 특유의 리듬과 서정적인 멜로디, 다문화적인 스타일을 통해, 라틴 재즈, 특히 아프로 쿠반(Afro-Cuban) 재즈의 대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피커션과 피아노, 라틴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연주자들과 꾸준한 교류를 주도해왔다. 쿠바와 모잠비크 출신의 연주자들과 함께 2015년에 결성한 콰르테토 아프로 쿠바노는 그가 현재 가장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는 앙상블로, 라



턴 재즈의 정수를 감각적으로 들려줄 것이다. 로페즈-누사 라 파밀리아는 ‘두 형제와 두 아들, 두 대의 피아노와 두 대의 드럼’이라는 독특한 컨셉의 가족 밴드로, 춤춤하게 짜여진 리듬위로 쿠바 특유의 흥겨운 선율이 속도감있게 전개되어 정통 아프로 쿠반 재즈를 화려하게 선보인다.

포 월 드라이브, 오지모시스, 립튼 : 재즈씬의 스타들이 이끄는 슈퍼밴드들의 향연: 이번 자라섬재즈의 최종 라인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재즈계의 스타들이 이끄는 밴드들의 활약이다. 21세기를 대표하는 트럼페터 테렌스 블랜차드는 영화 음악가이자 블루노트의 소속 연주자로 정통과지만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재즈씬의 혁명가다. 그의 컨템포러리 재즈 밴드 이-콜렉티브와 함께 세련되고도 모험적인 사운드를 통해 여전히 새로운 음악을 탐구하며 꾸준하게 활동 중이다. ‘뉴올리언스 핑크’의 대표주자 존 클리어리가 이끄는 더 앵슬루트 몬스터 젠틀맨 역시 뉴올리언스 남부 재즈 뿐만 아니라 그의 밴드와 함께 블루스, 핑크, 록을 결합한 핑키의 끝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멤버 전체가 모두 리더인 팀들이 돋보인다. 다양한 이력을 가진 멤버 개개인으로 결성되어 단독공연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이 모든 팀의 공연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페스티벌 무대라 가능한 일일 것이다.

2019 바다미술제 ‘상심의 바다(Sea of Heartbreak)’에서 자연과 생태, 삶 이야기한다

환경과 삶에 대한 고민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유구한 시간을 거처온 바다에서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약 12개국 30명 내외의 작가가 참여하게 될 2019바다미술제의 전시 타이틀은 싱어송라이터 돈 김슨이 1961년에 발표한 명곡 ‘Sea of Heartbreak(상심의 바다)’에서 착안한 것이다. 돈 김슨의 노래 속 바다가 실연의 아픔을 은유하는 공간이라면, 이번 전시를 통해 조명하는 ‘상심의 바다’는 자연환경이자 생태, 삶의 터전 등 다층적 의미를 가진 공간을 의미한다.

9.28-10.27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고시계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예술전문지

더 **MOVE** 와

‘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공연 및 더무브 구독 문의: 02.523.7356